

“종단 핵심정책 원만회향 힘모으자”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 관리강화 국고보조금사업 원만수행 위한 지원 약속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올 한해 34대 집행부 핵심 정책 과제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 위기도 잘 보듬어 줄 것을 역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2017년도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특히 교구본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종단 중점사업들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교구본사의 관심과 노력으로 전년도 중앙분담금이 완납되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며 “신도시 종교융자 매입과 성역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확연히 절감할 수 있었고, 총본산 성역화와 승려복지 등 중점 사업 또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부터 관리가 강화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모든 사찰이 원만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옛 봉은사 부지에 예정된 세계적 규모의 현대차 사옥 건립에 대응하는 종단 고심에, 앞으로도 많은 동참 바란다”고 역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문화재 영향평가를 무시하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군종특별교구를 포함한 21개 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인사말 하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고 인허가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졸속이고 전형적인 특혜개발로 봉은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는 모든 사찰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7일 오후2시 조계사에서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는 제14대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 추대법회에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뜻 깊은 동참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결산보고의 건, 14대 종정 추대법회 계획보고, 종단 주요 지도부 대중공사 계획 및 백년대계본부 활동방향 보고의 건,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대책위 활동 보고의 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도 핵심 정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국가안녕 국민통합 발원 범어사 ‘특별기도’ 봉행

금정총림 범어사가 국민대통합 발원 특별기도를 봉행했다. 범어사(주지 경선스님)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다음날인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국가안녕, 국민통합, 국론통일을 위한 3일 특별기도’를 가졌다.

대웅전에서 열린 이번 특별기도는 사중 스님들과 신도들이 동참해 불공을 통한 국민대통합을 발원했다. 경선스님은 “탄핵 선고 전까지 국민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돌로 나뉘어 화합되지 못했다”며 “흐트러진 민심을 다독이고 다시 화합하자는 의미로 이번 특별기도를 열었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범어사는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3·1운동의 출발지이고 6·25전쟁 직후 위령재를 지내는 등 호국사찰로서 역할을 해왔다. 나라가 혼란한 이때 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고 생각했다”며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한 발원으로 기도를 드리며 나라가 안정되고 다시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부산울산지사=송정은 기자 je.song@ibulgyo.com



성철스님문도회 소속 스님들은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왼쪽부터 일감, 자승, 원타, 총무원장 자승스님, 원택, 원타, 원영스님.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성철스님문도회, 총본산성역화 성금

성철스님문도회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 통합종단 출범이후 최대 불사로 손꼽히는 성역화 불사에 이번 기금이 보태지면 성역화 불사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철스님문도회 소속 스님들은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기탁했다. 이날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스님은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본격적

인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을 곧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후원하게 됐다”면서 “건물 철거 작업 등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조계사 모습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정성을 보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창원 정인사 주지 원행스님, 해인사 정량사 주지 원타스님, 하남 정심사 주지 원영스님,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스님이 함께 했다.

홍다영 기자

“진정한 통합은 서로다름 인정하는 것”

총무원장 스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3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의 예방을 받고 “요즘 시기에 진정한 애국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일에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박준영 의원, 송기석 의원, 신용현 의원 등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민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매칠 동안 많은 사람

들을 만나며 정말 치유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절감했다”며 “진정한 통합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품고 인정하는데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도 “인위적인 통합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기 마련이고, 진정한 통합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에서 우리나라를 통합할 수 있도록 최선봉에서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3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의 예방을 받았다. 본지는 안철수 전 대표와의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를 다음호에 게재한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기림사 성림금강승가대학원 개원

“한국불교 중흥 인재양성” 발전기금 7500만원 담지

경주 기림사는 지난 12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림금강승가대학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성림금강승가대학원은 1기생으로 7명의 비구 스님이 입학했으며, 2년의 전문 과정에서 <금강경야보송> <종경록> 등 한문 불전과 사서 사산비명 등 내·외전 강의 및 국내 석학의 초빙 특강을 통해 한문원전의 내·외전을 두루 익히게 된다. 이어 3년의 연구과정을 통해 <화엄경>, <선문염송> 등의 내외전을 연찬하고 연구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승가대학원장 덕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천지가 생기기 전, 만물이 생기기 전에도 내

본래 면목은 항상 청정한 그 자리였다”며 “화엄보살의 세계를 이 도량에 펼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불국사 관장 종상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함월산 기림사 청정도량에 제불보살님의 범등을 밝히고 역대조사님의 해명을 잇기 위해 오늘 성림금강승가대학원의 개원대법회를 봉행하니 무진법계에 상주하신 불보살님께서는 대중 모두가 삼명육통을 얻어 인천의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원했다.

한편 개원법회에서 성림금강승가대학원의 발전을 기원하며 불국사 관장 종상스님이 1500만원, 불국사 주지 종우스님 2000만원, 안국선원장 수불스님 3000만원, 그리고 불국사 이영숙 신도회장 500만원 등 총 7500만원의 기금이 전달됐다.

박광호 대구경북지사장 daegu@ibulgyo.com

4급 승가고시 190명 합격 능현스님 규은스님 ‘수석’

조계종 교육원(현은스님)은 4급 승가고시를 지난 11일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실시했다. 195명의 학인 스님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진 이

번 4급 승가고시에선 총 190명이 합격했다. 수석합격의 영광은 능현스님(사미)과 규은스님(석차마나니)이 차지했다. 합격자들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열리는 구족계 수계산람을 원만히 마치면 정식 스님인 비구(니)가 된다.

장영섭 기자 fue1@ibulgyo.com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

선지식 초청 특별법회 및 신심명·중도가 개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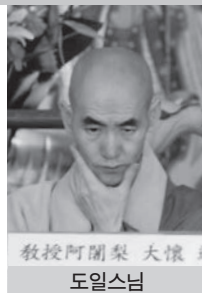
경전어록 전문 강설 도량인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에서는 ‘2017 선지식 초청 특별법회’를 오는 4월 한 달 동안 사부대중을 모신 가운데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종범스님, 도일스님, 도암스님을 초청, 매주 1회 릴레이 법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부산불교실업인회법당인 묘광선원에서 봉행될 이 특별한 법석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두루 참석하시어 선지식의 깊은 가르침을 수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5월 8일(월)부터는 열린불교아카데미의 지도법사이신 원순스님께서 들려주는 <신심명, 중도가>를 네 번째 경전어록 강의로 채택, 개강을 하게 되오니 경전어록에 관심이 있는 불자님들께서는 수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범스님



도일스님



도암스님

선지식 초청
특별법회

신심명
중도가 개강



원순스님

☞ 선지식 초청, 특별법회

4월 3일 월요일 저녁 7시 : 종범스님 (전, 중앙승가대 총장)
4월 10, 17일 월요일 저녁 7시 : 도일스님 (전, 송광사 율원장)
4월 24일 월요일 저녁 7시 : 도암스님 (전, 송광사 강주 / 현, 통도사 율원 교수)

☞ 열린불교아카데미 제 4기 <신심명·중도가> 강설

5월 8일 월요일 저녁 7시 개강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수업)
상임지도법사 : 원순스님 (전, 조계종 교재 편찬위원, 현,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
장소 : 묘광선원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27
문의 : 051 - 244 - 0263 / 010 - 3564 - 3725



※ 주차는 묘광선원 건너편 (구, 부산진구청 뒤) 성원주차빌딩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주차비는 개인부담임을 사전에 공지합니다.